

2006. 7. 19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 의 문

충청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께

홍수때 마다 충주댐의 수위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만을 위해 조절되었고 이에 따라 단양군과 충주시 지역은 항상 물바다로 만들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실종 1명, 이재민 101명과 도로, 하천 등이 유실되고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등 우리도 북부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단양군의 전 군민은 수마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이러한 끔직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도권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꼼짝이 보호하면서, 그 외곽에 서 있는 우리 지역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으며, 금번 특별재산지역 지정에서도 충북은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홀대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0만 충북 도민을 대표하여 정부에 다음 요구 사안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난 7월 14일 이후 집중호우로 수해가 크게 발생한 단양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댐 방류량 조절에 따른 충주댐 상류지역(단양, 제천) 및 하류지역(충주시 등)의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주댐 수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이 국가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살수 있도록 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우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년 7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